

11월의 다짐과 기도

책
머
리
에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희망세상』 가족들 그리고 민주화 동지들께 11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큰 꿈을 안고 1987년 6월민주항쟁 20년 행사를 뜻있게 마무리했습니다. 20년 전 바로 그 때의 정열과 감격을 되새기며 6월정신을 재현하고 심화시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라 했으니, 우리의 꿈도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오늘 그 큰 꿈을 되새기며 12월의 선택에 온 힘을 쏟도록 진지하게 다짐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하느님, 오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봉헌합니다. …… 우리 민족의 꿈, 겨레의 꿈인 민주,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꿈을 꼭 이룩해 주십시오.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며 미사 봉헌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기도의 효과를 늘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저도 때로는 무력감과 함께 실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에는 바위를 뚫어낸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기도를 반복합니다. 반복이 바로 무한한 힘이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실현됩니다. ‘초심(初心)’을 간직하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반복과 기억의 힘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기억, 이를 우리는 ‘기억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통해 우리의 꿈이 크게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채워야 할 몫입니다. 이에 우리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함께하는 연대의식과 동지적 결속입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민족통일 논의가 한창 뜨거웠을 때 젊은이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자기 주장과 논의만 열떠었을 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는 통일 논의가 오히려 새로운 분열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 우리 선열들이 상해, 만주, 일본, 하와이,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얼마나 피눈물 나게 싸웠는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열들은 조국 독립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도 좌우대립으로 서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그 한계와 우(愚)가 바로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황에서 통일을 꿈꾸며 대화를 통해 일치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가 침례하게 맞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께서도 그 큰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늘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리스도교의 원죄론(原罪論)을 떠올립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본성이 일그러져 분열적, 이기적, 배타적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인간 제 2의 본성으로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와 극기(克己)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修身齊家) 원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욕심이 절제와 극기로 통제될 때 비로소 사람은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이 우세하면 공동선(共 □와 령집 있습니다 와 기령건 이

한 독재정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때의 순수한 마음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알찬 열매를 맺도록 새로 다짐하며 동지적 결속을 꾀합니다.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건투를 빕니다.